

# 사상이념팀 연구의 방향과 역할 그리고 통합연구의 방안

발표자 : 이병수(사상이념팀)

## 1. 사상이념팀의 연구 방향과 역할

### 1) 연구 방향 : 인식론적 성찰

- \* 1단계 1년차(분단 인문학의 성찰) : 기존의 통일담론이 통일, 민족 정체성, 민족 동질성과 이질성 등을 정의하고 규정해 온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 개념을 인식론적으로 재구성하여 통일인문학의 기초 개념 정립(차이, 인정, 소통, 통합, 통일, 평화, 민족공동체, 이질성과 동질성 그리고 공통성 등의 개념 분석과 의미부여 작업)
- \* 2년차 (민족 공통성) : 전통문화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 과거 전통을 계승하는 기준에 대한 인식론적 반성(민주성, 현실적합성, 민중성 등)
- \* 3년차 연구(이론적 토대 구축) : 민족적 공통성을 인류보편적 가치와 결합하는 가치론적 전망(소외된 타자들을 대등한 주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남북 주민의 연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기반한 공동체/인권과 생태를 존중하는 공동체), 민족전통과 보편적 가치의 결합과 관련된 학문 방법론의 문제(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 등)

### 2) 역할

- \* 이상 아젠다에 나와 있듯이, 통일과 관련된 핵심 개념들, 전통 계승의 기준 등에 대한 인식론적 검토는 통일인문학의 정체성 확보와 공동연구에서 필수적이다. 이는 구상, 조사, 집필 등 연구의 전 단계에 걸쳐 세 분야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 \* 인식론적 성찰 외에도 정서문예팀과 생활문화팀의 연구성과들에서 철학적인 의제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다시 당대의 문학 작품과 생활문화를 분석, 평가하는 상호 되먹임의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호되먹임의 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있다. 달리 말해 학제적 통합연구를 현실화시킬 방안의 문제다. 통일인문학의 방법론을 논하기에 앞서 세 분야의 설득력 있는 연계 방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2. 통합연구의 방안

1) <사업계획서>에는 단계별·년차별 연구목표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적 연구내용은 기존 학문 분과의 틀 속에서 분야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팀 구성 아래 아무런 고민 없이 그대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텍스트 분석, 문학치료, 문화콘텐츠의 방법론에 따라 분산된 연구의 집적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각 팀의 방법론도 발전시키면서,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세기 한반도 지성사>라는 공동과제를 제안해 본다. <남북 지성사> 서술이라는 공동과제를 1, 2단계 연구의 실질적 목표로 삼을 때, 세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방법론 정립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이 공동과제는 돌출적인 제안이 아니라, 3단계 1년차의 과제(남북통합 지성사)로 제시된 것이며, 이 과제는 1, 2단계의 성과를 20세기 한반도 지성사적 맥락에서 그 의의를 새롭게 조

명하는 시간적 심화 확대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사실상 1, 2단계의 연구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연구목표이기도 하다.

3) 또한 지성사(혹은 사상사)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철학이 이성에 기반한 진리추구라면, 사상은 감정과 권위에 의존한 평가적 신념이라는 철학과 사상의 엄밀한 이분법>을 지양하고, 사상의 여러 층위(생활 정서-생활문화(인생관·가치관)-추상적인 이론) 속에서 문학, 역사, 철학을 아우르는 데 있다. 사상사와 달리 철학사란 사상의 높은 봉우리(추상적 수준)만 골라, 날라 다니는 데 불과하다. 지성사의 특성상, 당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생활정서, 문화, 철학적 사유의 흐름의 연관을 짚어내는 공동연구가 가능하다.

4) 나아가 분단과 통일을 이념대립을 넘어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20세기 지성사 연구는 필요하다. 지성사적 탐구는 분단과 통일을 단순히 남북 체제 이념 대립의 측면이 아니라 <한반도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대안이 충돌한 결과로서 이해하거나, 동서 문명이 배척과 갈등 그리고 공존과 만남 등 다양한 형태로 뒤섞여 서로 영향을 주면서도 서구문명이 압도해 온 과정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5) 물론 지성사라는 공동과제 중심의 연구가 <사업계획서>를 무시하고 시기별로 죽 훑어가는 기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팀별로 단계별 연차별 연구목표를 각기 진행하면서도 년 1회(혹은 2회) 정도 <특정 시기에 나타난 문학작품, 생활문화, 철학적 흐름의 연관>을 공동연구 과제로 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남북의 변화된 사상적 지형>(시기적으로 1990년대)을 주제로 삼을 수 있다.(이 주제는 1단계 1년차, 1단계 3년차, 2단계 1년차의 연구목표에 상응한다) 여기서 세분된 주제 이를테면 <1. 남북의 변화된 이데올로기(민족주의의 강화(북)와 세계화 담론(남)) 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3. 변화된 생활문화>를 선정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세 팀을 그대로 둔 채 진행할 수도 있고, 주제별로 팀을 새로 꾸려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 지성사를 공동연구과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대>뿐 아니라 <특정 주제>(예컨대 문사철 각 영역의 통일논의)도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

# 통일인문학의 중장기적 목표 및 연구의 방향과 역할

김종균(정서문예팀)

## 1. 통일인문학의 비전

### (1) 기존의 통일학(정치·사회·경제적 측면) + 인문학(사상·정서·생활문화적 측면)의 결합

통일인문학은 신생의 통일론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의 통일담론을 수용한다. 그리고 기존 통일론의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상·정서·생활문화의 인문학적 관점과 방법론을 그 토대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곧, 정신적·문화적 차원의 소통과 공존·통합이 실질적인 분단 극복의 방안이 될 것이고 통일의 진정한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2) 지적 영역(철학·역사(+정치사회학)) + 정서적 영역(문학·예술·민속(+대중문화론))의 통섭

통일인문학은 지적(사상적·이념적) 영역에 대한 연구와 정서적(문화적·예술적) 영역에 대한 연구를 상생적으로 통합하는 인문학 내부의 통섭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통일인문학이 융합학문으로 나갈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 (3) 집단적·외형적 분단 상황 극복 + 개인적·내면적 분단 상황 극복

통일인문학은 우리 사회 일반에 만연된 반통일 정서나 분단서사를 극복하고 개개인의 내면에 자리한 트라우마 치유를 통해 통합서사로 나아갈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문학치료학이라는 신생 학문이 통일인문학 영역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 (4) 과거(함께한 삶) + 현재(갈라진 삶) = 미래(함께할 삶)

통일인문학은 남북이 함께 공유했던 과거의 전통과 유산에 현재의 분단 상황에서 생산한 각이한 문화를 통합하여 미래의 함께 할 삶을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다.

## 2. 통일인문학 연구의 중장기적 목표

### (1) 융합학문으로서 '고리학(高麗學)/겨레학' 체계 수립

통일인문학의 목적에서 외형적으로 남북의 인문학을 통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용어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남의 인문학을 통합하여 한국학이라 명명한다면, 이북의 경우는 조선학으로 명명할 것이다. 이를 통합하는 명칭으로 '통일한국학'을 제시했을 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리학(高麗學)이라는 용어로 남북 통합인문학의 명칭을 제시해 본다. 이는 통일 후 국호까지를 염두에 두고 고민할 문제이다. 혹여 순우리말로 '겨레학'은 어떠할지?

이 고리학은 신학문 초창기 인문학을 언어, 문학, 민속, 사상, 철학, 역사로 세분화하지 않고 '국학'이라는 용어로 통합 연구했던 상황과 흡사한 인문학의 통합 영역이다. 여기에 생활문화의

기본적인 요소를 이루는 정치, 경제, 법학 등 사회과학의 일부 영역을 포함하는 융합학문 체계가 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인문학 분야에서 그나마 연구 관점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 영역이 국어학, 고전문학, 민속학, 역사학의 일부 분야이다. 이를 우선적으로 통합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겨레고전문학사’나 ‘겨레고전문학대계’, ‘겨레민속학대계’의 편찬 작업은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언제라도 가능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이에 비해 현대문학이나 철학, 사상, 근현대사 영역은 그 기본 텍스트나 연구방향에서 남북의 견해가 판이하여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 통합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우리 통일인문학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교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남북의 경우 국문학 분야에서는 작품의 갈래나 문학사 시기 구분 등이 크게 어긋나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문학, 현대문학의 영역 구분이 융합학문인 고리학에서는 그 효용성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문화사’, ‘문예학’, ‘역사철학’, ‘정치철학’, ‘문화치료학’ 등으로 새로운 학문 분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융합학문으로서 ‘문화콘텐츠학’이 성립된 예를 통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 (2) 고리학/겨레학전문대학원 설립

통일인문학 사업의 단계별 사업 방안에 가장 큰 비중은 ‘통일한국학대학원’ 설립에 있다. 이는 현재의 대학 구조나 국가 정책의 추진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대학측이나 국가 차원에서 권고 받을 여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내 대학에는 중국,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유학생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수학하기를 요망하는 학문은 ‘한국어’, ‘한국경제’ 등으로 특수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과나 학문 체계에서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변통으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에서는 한국어 강좌에 한국 전통문화, 민속학 과목을 개설하여 그나마 한국문화 전반을 지도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의 국학을 아우르는 ‘고리학/겨레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시급히 요청되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국가 정책에서도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현재의 학과 단위 학문 체계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을 고민하여 ‘융합학과’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다면 통일인문학의 중장기 목표는 융합학문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교육할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을 병행하여 융합인문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선점하는 것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 3. 구체적 연구 방법

### (1) 우리 민족이 공유한 인문학(정서)의 실체 연구

통일인문학 연구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통일인문학’의 실체와 영역을 파악하는 일이다. 흔히 남측의 경우 ‘문·사·철’ 혹은 ‘국학’으로 명명되는 학문적 영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남북이 함께 인지할 수 있는 실체와 영역을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질화된 남북의 학문적 소통을 위해 중국·러시아·일본·미국·유럽 등의 재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인문학 개념과 실체를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남측의 인문학에서 논

의한 학문적 가치가 북측이나 재외 민족에게도 일관되게 평가되지 않는 부분도 많을 듯하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인문학의 실체를 파악하고 공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텍스트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

## (2) 반통일 정서의 분석과 분단 상처의 치유 방안 연구

분단 이후 체제를 달리하면서 발생한 반통일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통일인문학의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데 선행되어야 한다. 통치 체제에 따라 고착된 남측의 반공이념, 북측의 반미 반남한 정서, 6.25 전쟁으로 야기된 적대감정, 경제적 격차에서 나온 괴리감의 실체를 역사 문화적 차원에서 정밀하게 분석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반통일 정서는 고스란히 분단의 상처로 민족 개개인의 마음에 남아 있으므로 이를 치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치유의 방안이 분단 극복과 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치유의 방안은 정국 경색에 민감한 정치 경제적 지원이나 교류보다는 문화 정서적 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 차원이 훨씬 효과적이다.

치유의 방법론으로 한민족이 공유한 서사를 도출하고 이를 원용하여 문학치료를 시도하는 차원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 (3) 분단서사와 통일서사의 개념 정립 및 실체 조사

분단 트라우마 치유를 염두에 둔 통일인문학에서 분단서사와 통일서사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 실체를 파악하여 이론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분단 트라우마를 간직한 이들의 구술 조사를 통해 분단서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통일서사의 실체는 통일 사업에 주력해온 인사들의 인터뷰나 강연 등을 통해 모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표본을 선정하고 적절한 구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서사와 통일서사의 개념은 당대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역사상 분단과 통합이 반복되어 왔다. 삼국 분할과 통합, 후삼국 분할과 통합의 과정을 다룬 역사서나 문학 작품에서 분단서사와 통일서사의 실상을 읽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문학과 역사 영역이 연계하여 분단서사와 통일서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실체를 탐색해야 한다.

## (4) 융합학문의 이론 및 연구서, 교재 개발 및 출판

현재의 학문 체계를 담은 연구서나 교재에서 벗어나 융합학문 체계를 뒷받침할 연구서나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남북 공동의 사상사, 문화사, 문학사가 서술되어 출판되어야 하며 남북 공동의 언어·문화·영상·예술 DB 및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융합학문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일인문학 연구의 중장기적 목표와 분야별 연구의 방향과 역할

2010. 5. 20 생활문화팀 정진아

## 1. 통일인문학의 기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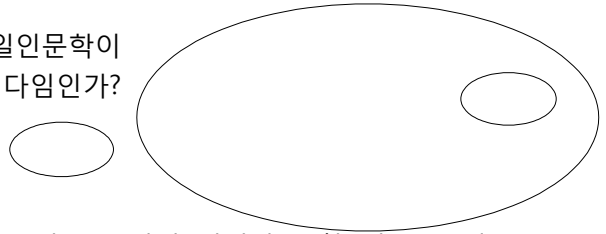
<계획서>

통일은 분단구조가 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남북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남북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동태적 과정. 따라서 통일과정은 새로운 생활방식, 사고방식,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들 것을 요구. 통일인문학은 분단 상황에서 만들어진 학문적 담론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과 언어로 통일에 접근해보자는 것. 새롭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해해보자는 것. 통일담론의 근원적 재구성을 겨냥하고 있음

<문제의식>

통일인문학은 기존의 통일담론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일담론 밖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통일인문학이 과연 기존의 통일담론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아니면 통일학의 하위 범주로서 정치경제적 접근, 사회적 접근과는 다른 인문학적 접근 방식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인가?



통일인문학이 기존의 통일담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이라고 할 경우, 우리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독자적인'이라는 막중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생활문화팀은 통일인문학이 기존의 통일담론과 별개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통일학의 한 부문으로서 기존 통일담론이 천착하지 못했던 사유, 정서, 생활 등 인문학적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기존 통일담론에 대한 평가와 통일인문학의 필요성

<계획서>

기존의 통일담론 :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론 한 추상적 이론, 체제우선적 시각, 민족 동질성 회복론, 부국강병적 민족주의, 서구 중심

새로운 통일담론 : 분단의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는 불감증을 병증으로 인식, 처방을 요구. 사회통합적인 시각. 근대성의 성취와 더불어 근대성 극복, 생태 환경 인권의 인류보편적 가치를 담아내는 통일담론, 한국의 특수한 역사, 경험, 현실에 기반.

<문제의식>

과연 기존의 통일담론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가? 사회과학에서 먼저 사회통합론 제기. 지금 사회과학에서는 평화담론 속에서 통일담론을 논의하고 있다. 생태·환경·인권·평화는 오히려 사회과학이 선점하고 있는 내용이자, 통일의 당위성을 넘어서는 논의. 사회과학과의 논쟁의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우리가 사회과학에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무엇인가? 왜 공히 사회통합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인문학적 접근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생활문화팀은 우리의 문제의식이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삶과 일상의 문제로 가지고 오자는 것, 삶과 일상의 변화를 통해 통일로 가자고 하는 것이며, 사회과학적 접근방식이 이점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인문학에서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안>

1990년대 이후 제기되었던 통일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과학적 논의의 수준과 문제의식을 진단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와 한계 속에서 통일인문학이 가야 할 길을 되짚어보자. 그 속에서 사회과학, 인문학 공히 각자가 해야 할 임무와 역할을 찾고, 상보적 관계 속에서 건강한 논쟁과 요구를 하나갈 수 있도록.

### 3. 통일인문학의 연구방법론

<계획서>

과거-현재-미래를 연계한 공시적 통시적 연구방법(이질화와 이념대립, 사상적 차이 탐구 → 역사적 공통의 가치 재인식 → 공감할 수 있는 삶의 방식 공유 → 비전 제시와 삶의 새로운 방식 창조), 문학치료학의 방법론, 생활문화 중심의 미시적 접근법, 비교학적 연구 및 계보학적 연구 등 문사철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 학제간 통합연구를 통해 이념적 적대를 극복하는 프로그램 마련

<문제의식>

학제간 통합연구를 통해 이념적 적대를 극복하는 인문학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그렇다면 우선 학제간 통합연구는 어떻게 진행해갈 것인가?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학제간 통합연구의 방식은 당대의 생활문화를 형상화한 문학작품을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당시의 철학적 논쟁을 생활문화 연구와 연결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각 팀에서 하나씩 공통과제를 제시하고 함께 연구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통일인문학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학제 간 연구의 시범케이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평가, 반성,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통일인문학 연구의 전형이 만들어질 것이다.

### 4. 생활문화팀의 방향과 역할

<계획서>

생활문화팀 : 전통문화를 다루는 민속학, 남북주민의 생활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회사연구, 한국적 특징을 담은 생활문화콘텐츠 개발 → 남북공생의 대안적 생활문화 모색

※ 1단계 분단의 인문학적 성찰

1년차 : 분단의 아비투스(문화)와 생활문화

남북 역사학계의 일제하 독립운동사 서술의 변화와 그 함의, 남북의 망탈리테와 생활양식의 역사적 비교연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생활양식의 차이와 그 특징, 남북한 공적체계와 사적 삶의 비교, 남북한의 군사문화 비교

2년차 : 민족적 공통성 연구

남북역사관과 역사해석의 비교연구, 민족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남북의 인식과 적용, 남북 통일담론에 나타난 민족 공통성의 특징과 내용, 남북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동체적

전통의 왜곡 및 변형, 남북의 역사문화적 상징 연구

3년차 : 분단 극복의 생활문화적 대안

남북교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결합 가능성, 남남 갈등 극복의 실천적 방법론, 남북한 지역주의의 극복방안 연구, 남북 통일문화에 대한 인식과 결합가능성 연구

<문제의식>

모두 다 하기 보다는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고민.

생활문화팀에서는 내용적으로는 1년차 분단의 아비투스과 생활문화 - 1950-60년대 남북의 생활양식 비교연구, 2년차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 민족전통의 왜곡, 변형 및 적용 과정 및 역사문화적 상징 불러오기, 3년차 분단 극복의 생활문화적 대안 -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결합가능성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구조와 제도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생활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을 이야기할 것인가? 먼저, 1990년대 이후 생활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일상생활 연구 두 축으로 진행되어온 기존의 생활사 연구(이론, 구체적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생활사 연구의 기본 텍스트 읽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동시에 남북의 일상생활을 파노라마처럼 스케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생활문화 연구의 전범을 마련하는 작업. 예를 들면, 1950년대 남북한의 농촌시장 / 1960년대 북한, 협동농장에서의 하루 / 1970년대 남한의 건설현장 / DMZ 평화도시 구상 등등. 전통적 생활방식의 변화와 근대화(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 과정, 분단 극복의 생활문화적 대안 등을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그려낼 수 있도록 한다.